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중 매체의 이미지나 텍스트는 대체로 허구성을 지닌다. 이러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과 무관하게 문장 그 자체가 ㉠ 갖는 명제인 의미론적 내용과 맥락을 통해 수용자가 실제로 인식하는 사용상의 내용을 구분해야 한다. 의미론적 내용과 달리 사용상의 내용은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수용자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사용상의 내용을 수용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이 자연스럽게 삼입되는 현상을 발견한 폴랑 바르트는, 이러한 개입 현상을 ‘현대의 신화’라고 명명하였다.

바르트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기호로서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표기를 1차 기호 체계, 그리고 이것과 사회·문화적 함의가 덧씌워져 생성한 새로운 층위의 의미를 2차 기호 체계로 분류하여 현대의 신화를 설명하였다. 현대의 신화는 본질적으로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하는 매체를 의미하고, 생산자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현실을 재구성한 의미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은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파한다. 결국 바르트는 모든 콘텐츠가 사회적 함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자가 이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바르트의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내용을 담은 매체를 이해 가능한 명제로 인식하는 인지적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사용상의 내용은 물론 의미론적 내용조차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허구적 문장이 수용자의 의식 속에서 성립하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불완전 명제 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의 문장이 일반적인 문장과 같이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하되 허구적인 지시대상을 가진, 즉 지시대상이 비어 있는 형태를 ㉡ 취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인종차별이 없다’는 취지로 제작된 가상의 흑인 군인이 그려진 선전물을 인식할 때 작동하는 1차 기호 체계에서, 그 명제는 온전한 사실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인 노출 속에서 수용자는 이를 기각하지 않고, 명제의 나머지 부분이 형성한 최소한의 구조적 틀이 제시하는 의미론적 내용을 인식하여 결합을 용인하게 된다. 수동적인 수용자가 불완전한 구조 속에서 의미론적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선전물이 의도한 사용상의 내용이 수용된 매체에 자명한 진실인 양 자리잡게 되는 2차 기호 체계가 동작하는 것이다.

(나)

‘금성’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단어 ‘셋별’과 ‘개밥바라기’에 대해 ‘셋별은 셋별이다.’와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독일의 언어 철학자 고틀로프 프레게는 이러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기호를 ‘뜻’과 ‘지시체’라는 이원론적 체계로 구분하여 분

석하는 의미론적 지시 이론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뜻은 ‘셋별’이나 ‘개밥바라기’와 같이 언어 기호가 대상을 ㉢ 지시하는 방법이고, 지시체는 금성 그 자체처럼 언어 기호가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객관적인 실체이다. 앞선 사례에서 프레게는 ‘a는 b이다.’는 ‘a는 a이다.’와 달리 지시체가 같더라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은 정보를 내포한다고 생각했다. 더 나아가 프레게는 뜻을 주관적인 관념보다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취급함으로써 언어 사용자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프레게의 ‘뜻’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오직 하나의 대상을 지칭하는 한정 기술구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할 때 러셀은 기술 이론을 제시한다. “프랑스의 현재 국왕은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자면, ‘프랑스의 현재 국왕’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이므로 프레게에 의하면 지시체가 부재하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 된다. 반면,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르면 이 문장은 존재 조건, 유일 조건, 속성 조건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은 존재 조건 “프랑스 국왕인 대상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와 유일 조건 “프랑스 국왕인 대상은 오직 하나뿐이다.”, 속성 조건 “그 대상은 대머리라는 속성을 가진다.”라는 세 명제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 지시체가 실존하지 않으면 진리를 판별할 수 없다고 생각한 프레게와는 대조적으로, 러셀은 범주화된 명제의 진리를 판별함으로써 총체적인 진리를 ㉤ 가릴 수 없던 논리적 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러셀의 기술 이론은 문장의 문법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를 분리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 다룰 때 발생하는 논리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러셀 역시 일상 언어의 복잡성을 완벽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술 크립키와 같은 후대 철학자들은 고유명사가 한정 기술어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러셀의 견해를 반박하며, 이름은 대상의 속성과 관계없이 사회·언어적 맥락 속에서 그 대상을 끝까지 지칭하는 고정 지시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언어가 논리적 조건의 결합을 넘어, 대상과 맺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매체의 수용자가 지녀야 할 태도를 강조하고, (나)는 문장의 진리를 판별하는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 ② (가)는 허구적 내용을 인식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나)는 러셀의 문장 분석법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③ (가)는 불완전 명제 이론이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하고, (나)는 허구적인 내용이 문장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 ④ (가)는 현대의 신화가 동작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나)는 다양한 학자의 이론에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다.
- ⑤ (가)는 대중 매체가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나)는 언어 분석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5. 불완전 명제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판적인 태도의 대중이 허구적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인식할 때에는 선전물의 의미론적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
- ② 문장이 가진 최소한의 논리적 틀만으로도 허구적 내용은 인지 체계 안에서 이해 가능한 정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③ 현대의 신화가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불완전 명제의 결합이 수용되는 인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④ 허구적 내용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수용 방식에 따라 수용자가 결합을 용납하고 의미론적 내용을 수용하게 된다.
- ⑤ 생산자가 의도한 사용상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맥락이 불완전 명제의 수용 과정에 개입하여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6.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르트는 ‘셋별’과 ‘개밥바라기’가 모두 ‘금성’을 의미하는 관계이더라도 표기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1차 기호 체계가 동작한다고 주장하겠군.
- ② 바르트는 수용자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프레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에 따르면 선전물에서 허구적 내용에 대한 지칭 표현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수용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겠군.
- ④ 러셀의 기술 이론에 따라 “홍부는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다.”라는 문장을 범주화했을 때, 속성 조건과 유일 조건은 모두 불완전 명제에 해당하는군.
- ⑤ 슐 크립키의 견해에 따르면 수용자가 고유 명사를 인지하여 기호 체계가 동작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신화가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가능성은 없겠군.

7. (나)를 바탕으로 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뜻이 다르다면 지시체가 실존하지 않아도 허구적 문장이 포함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② 지시체는 뜻과 달리 현실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대상이므로 지시체가 부재하면 뜻 또한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③ 뜻은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뜻만으로 진리를 판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 ④ 주어진 명제를 조건 구성 단위로 분해하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분해된 명제의 진리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지시체가 없더라도 뜻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지시체는 현실과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8. (가), (나)에 등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의 입장을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마이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비록 현실의 시공간에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속성을 지닌 ‘어떠함’의 상태로는 존재한다. 즉, ‘황금 산’이나 ‘둥근 사각형’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거나 심지어 논리적으로 모순된 대상일지라도, 사고 속 대상으로 지향되는 순간 고유한 속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허구적 대상이나 내용 역시 의미를 지닌 사고의 객체로서 문장의 구성 요소로 온전히 성립할 수 있다.

학자	비판의 내용
바르트	허구적 대상의 존재론적 지위에만 주목하고 의미론적 내용만을 중시함으로써, 내용의 수용자마다 수용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다루지 않았다. …… ①
프레게	사고 속 대상에 지시 표현을 대응시키는 과정에 사고의 주체인 인간의 심리가 개입한다면, 사고 속 대상이 객관적인 존재자로 취급될 이유가 없다. …… ② 뜻이 성립하는 것과 지시체가 실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모두 ‘대상’으로 격상하면 ‘실존하는 것’과 ‘정의된 것’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 …… ③
러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사고 속에서 상정하고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존재’를 속성이 아닌 조건으로 격하여 취급하는 것과 같다. …… ④ 문장의 구조만으로 부재하는 대상을 존재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며, 존재 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냄으로써 논리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 ⑤

9. 문맥상 ㉑~㉕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㉑ : 그런 사소한 일들을 갖고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다.
- ② ㉒ : 친구는 감기가 나은 뒤 음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 ③ ㉓ : 코치는 선수에게 컷속말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였다.
- ④ ㉔ :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였다.
- ⑤ ㉕ : 국회는 국민과 관련된 법률을 입법하는 일을 다룬다.